

鄉歌의 訓借字와 萬葉集歌의 訓假名에 있어서의 運用에 대하여

李鍾徽*

I.

訓民正音 創製以前의 國語는 借字體系와 그 運用의 解明을 통하여 좀 더 滿足스러운 研究가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現實情은 資料가 貧困하고 研究方法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難點이 많아서 아직 解明되지 못한 것이 한 둘이 아닌 것이다. 借字表記 資料中 鄕歌는 言語的 側面에서 볼 때, 音韻·文法·語彙·統辭構造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情報를 우리에게 提供해 주는 貴重한 資料인데 不過 25首라는 資料的 制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資料的 制約을 克服할 수 있기 위하여는 거의 같은 時代의 詩歌로서 借字表記 方式을 취한 萬葉集歌와의 表記體系에 대한 比較가 不可避한 것으로 생각 된다.

왜냐하면 萬葉集歌의 表記體系를 鄕歌의 表記體系와 比較檢討함으로써 鄕歌의 表記體系를 보다 完璧하게 再構할 수 있는 可能성이 있기 때문이다.

萬葉集歌는 우리 향가의 경우와는 달리, 그 歌數가 4,500餘首에 異本만 해도 20個(寫本 15個, 板本 5個 등)나 되는 老大한 資料로써 일찌기 村上(951 A.D.)以後 거의 千餘年동안 繼續的인 解讀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日本語의 音節構造가 지극히 單純하여 漢字借字表記의 觀點에서 볼 때, 比較的 成功한 表記體系이므로(李基文, 1972:53) 韓日兩國의

* 人文大 副教授

歷史的 文化的 關係의 繫密性은 漢字借字表記의 同質的 並行性을 想定 할 수 있다. 따라서 萬葉集歌에 대한 表記體系의 理解는 곧 鄉歌에 대한 表記體系의 理解로 直結된다.

그런데, 兩國의 漢字借字 表記體系의 比較研究가 晉借字와 晉假名의 比較에서 머물렀을 뿐, 鄉歌의 訓借字(또는 義訓借字)와 萬葉集歌의 訓假名과의 比較가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訓借字와 訓假名은 借字體系 및 그 運用이란 觀點에서相互 對應關係를 이루는 表記樣式인 것이다. 따라서, 萬葉集歌에서의 訓假名의 表記例들은 徒來의 鄉歌 解讀에서 晉借字로만 把握되어 오던 難解한 詩句들을 訓借字로 읽어 解讀이 풀릴 수 있는 可能性을 示唆해 준다.

本稿에서 例示한 萬葉集의 臺本은 西本願寺本이다. 이것은 初期의 다른 寫本(가령, 桂本 10C · 藍紙本 12C · 天治本 12C · 類聚古集 12C 등)과는 달리, 二十卷을 모두 갖춘 最初의 寫本인 것이다.

例文의 付訓은 高木市之助 · 五味智英 · 大野晋校注 岩波 日本古典文學大系 5 萬葉集에서 취한 것이다. 「kakikudasibun(書き下し文)」은 西本願寺本을 底本으로 한 鶴久 · 森山降 編 萬葉集에 의한 것이고, 그 Romanization은 國語學會編 國語學辭典(東京堂出版社, 1955)의 國語音節一覽表('奈良時代當時의 大和地方에서 행해진 것으로 推定되는 것'이란 註가 있음 p.993)에 의한 것이며, 甲 · 乙類分類는 橋本進吉(文字及び 假名遣の 研究, 1949)의 活用法則을 參照한 것이다.

Romanization의 體系는 다음과 같다.

(甲 類)					(乙 類)		
a	i	u	e	o			ö
ka	ki	ku	ke	ko	kī	kē	kō
ga	gi	gu	ge	go	gī	gē	gō
sa	si	su	se	so			sō
za	zi	zu	ze	zo			zō

鄉歌의 訓借字와 萬葉集歌의 訓假名에 있어서의 運用에 대하여 [377]

ta	ti	tu	te	to		tō
da	di	du	de	do		dō
na	ni	nu	ne	no		nō
fa	fi	fu	fe	fo	fi	fē
ba	bi	bu	be	bo	bī	bē
ma	mi	mu	me	mo	mī	mē
ja		ju	je	jo		jō
ra	ri	ru	re	ro		rō
ya	yī		ye	yo		

글으로 本稿에서 使用된 鄉歌解讀者의 人名 및 그 著書의 略稱, 그리고 原文出處의 略號는 다음과 같다.

〈小〉: 小倉進平(鄉歌 及び 吏讀の 研究, 1929)

〈梁〉: 梁柱東(增訂 古歌研究, 1965)

〈池〉: 池憲英(鄉歌麗謡新釋, 1948)

〈善〉: 金善琪(향가의 새로운 풀이, 1967~1975)

〈鄭〉: 鄭然祭(鄉歌의 語文學的研究, 1972)

〈徐〉: 徐在克(新羅鄉歌의 語彙研究, 1974)

〈俊〉: 金俊榮(鄉歌文學, 1979)

〈完〉: 金完鎮(鄉歌解讀法研究, 1980)

〈慕〉: 慕竹旨郎歌 〈獻〉: 獻花歌

〈安〉: 安民歌 〈讚〉: 讚香婆郎歌

〈處〉: 處容歌 〈著〉: 著童謡

〈禱〉: 禱千手觀音歌 〈風〉: 風謡

〈願〉: 願往生歌 〈兜〉: 兜率歌

〈祭〉: 祭亡妹歌 〈彗〉: 彗星歌

〈怨〉: 怨歌 〈遇〉: 遇賊歌

〈禮〉: 禮教諸佛歌 〈稱〉: 稱讚如來歌

〈廣〉: 廣修供養歌 〈懺〉: 懈悔業障歌

〈隨〉: 隨喜功德歌 〈請轉〉: 請轉法輪歌

〈諸佛〉: 請佛住世歌 〈常〉: 常隨佛學歌

〈恒〉: 恒順衆生歌 〈普〉: 普皆迴向歌

〈總〉: 總結無盡歌 〈悼〉: 悼二將歌

II.

鄉歌의 訓借字와 萬葉集歌의 訓假名은 漢字를 假借하는 表記方式에서 共通點이 있다. 어떤 概念語(lexical form)에서 그 韻相을 취하여, 그 것으로 다른 概念語를 나타내거나 또는 文法形態素(grammatical morpheme)를 表記함에 援用하는 것인데 이런 表記樣式이 兩便에 共通된다. 이제, 概念語를 表記할 경우와 文法形態素를 表記할 경우로 나누어 論議하기로 한다.

1. 概念語(Lexical Form)의 表記

‘所音物生’(安⑤)이란 詩句는 가장 難解한 것으로 金完鎮(1980:75)은 종래의 해독과는 달리, ‘바라물썩’로 읽은 것 즉 文證으로는 ‘處’의 訓으로 ‘바라-’를 볼 수 있는데, 그 ‘바라’를 ‘所’에 代入 援用한 것으로 이것은 動詞 ‘바라-’에 해당된다. 이 意味는 ‘버릇되다·깃들이다’이며 ‘음’은 持續態의 接尾辭 ‘을서’는 理由를 나타내는 副動詞語尾다. 이런 表記樣式은 萬葉集歌에서도 보인다. 가령, ‘名草武類’(十三3280)를 ‘慰むる’로 읽었는데, 이것은 ‘名’의 訓 ‘na’와 ‘草’의 訓 ‘kusa’ 즉 nagusa를 취하여 다른 意味의 ‘慰’에 代入 援用한 것으로 이것은 動詞 ‘nagusa-’ ‘慰’에 對應되는 것이다. 이런 種類의 假借는 문맥으로 의미의 상정이 분명한 자리에서 가능한 類義語 중의 다른 형태를 排除시키는 작용을 의식해서 생겨난 表記樣式으로 推定된다(金完鎮, 1980:83).

A. 가. ①(膝膀) 古召旅〈釋①〉

小倉進平(굽으리며)을 論外로 하면 梁柱東·池憲英·徐在克·金俊榮(고조여) 및 金善琪(고묘여) 등은 3字를 내리 音讀하였는데, 오직 金完鎮(노초여)에 이르러 비로소 義訓借로 인식된 것이다. ‘古’는 ‘노초여’의 ‘노’를 위하여 ‘늙-’이 이용된 것이다. 末音으로서의 ‘리’가 다음 ‘召’字의 頭音으로 代替되어 ‘늙-’로 표현된 것이다. ‘召’는 그 音이 ‘소’이나 ‘招’와 通用될 때에는 ‘초’가 되는 것이며 ‘旅’는 ‘여’로 읽힌다(金完鎮, 1980:99). 즉 古：訓借字(노-：

動詞의 語幹) 召 : 音借字(초 : 使役·接尾辭) 旂 : 音借字(며 : 副動詞語尾)

가. ② 古理因 〈怨⑤〉

小倉進平·池憲英(고인) 및 金善琪(고린) 등 3자를 내리 音讀한 경우와 徐在克(다스론)·金俊榮(네린) 등 訓讀한 두 경우가 모두 動詞로 파악한 点에서는一致하나 金完鎮은 이를 解讀이 文脈이나 語法面에서 볼 때 어색 하므로 '古'는 그 調 '누-'에 의하여 '누린-'의 '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古理因'도 訓主音從의 範疇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金完鎮, 1980:141). 즉 古理 : 訓借字+音借字(누리- : 動詞의 語幹) 因 : 音借字(ㄴ : 冠形形語尾)

가. ③ 古只內乎叱等邪 〈謳⑧〉

小倉進平(고티누웃다라)·梁柱東(고티누웃다라)·金俊榮(고티 누오쓰라)·徐在克(고지 누오쓰라)(단, 金善琪는 '古'를 위로 올려 불여 '디나다'로 읽음)등 모두 내리 音讀하여 '부처'를 主語로 한 그 動詞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金完鎮(1980:106)은 文末의 定動詞인 '古只內乎叱等邪'에 '시'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주어는 辭說者 自身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見解다. '古只'의 '只'는 '呂'의 轉訛로 보아 '누리-'(회감자 매달리는 意味)이고 語尾部分은 내리 音讀하여 '누웃두야'가 된다. 즉 古只 : 訓借字+音借字(누*리- : 動詞의 語幹) 內乎叱等邪 : 音借字+音借字+音借字+音借字(누웃두야 : 感歎法 語末語尾)

나. ④ (吾衣身)伊波 〈普⑩〉

小倉進平(나의 몸인 바)은 「-인 바」로, 梁柱東(내 몸이 바)·池憲英(내 이 몸이 바)·金善琪(우리 몸이 바) 등에게서는 「~이지, ~이어니」 등으로, 그리고 金俊榮(내 몸이 바)에서는 「이 바」가 一轉하여 「이 바」로 混練되고 있는데 金完鎮(1980:204~205)은 '伊波'를 訓主音從型으로 파악한 것이다. '덥-(疊)'의 活用形으로서의 '더버(첩어)'로 인식한 것이다. 즉 伊 : 訓借字[며-(疊)] : 動詞의 語幹] 波 : 音借字(비 : 行先語幹末音 'ㅂ' + 副動詞語尾 '어')

나. ⑤ 伊吾音之叱恨懸 〈遇⑨〉

'伊吾音之叱恨懸'에서 '伊'를 위로 올려 불여 뜻이 멀어진 池憲英(내 소래 입하는)·金善琪(율음엔간) 등을 論外로 해도 梁柱東(이오Matt)·徐在克(이노잇恨은)·金俊榮(이내소릿흔) 등은 '伊'를 언제나 音讀한 것이 종래의 해독이었다. 金完鎮(1980:153)은 語頭에 놓인 '伊'는 「此·是」 등과 함께 모두 訓讀하는 態度를 취하여 위의 '伊'도 '며'로 읽어야 된다는 見解다. '며오잇'은 '저만한'에 대한 '조만한'에 해당하는 것이며 '~마흔'은 '-마흔'과 '맛'의 混混의 結果일지 모르겠다고 했다. 즉 伊吾音之 : 訓借字+音借字+音借字+訓讀字

(더오미- : 形容詞의 語幹의 名詞化) 叱恨 : 音借字 + 音借字(入호 : 接尾辭) 隱 : 音借字(은 : 確認添辭)

다. ⑥ (集刀)花乎 〈願⑥〉

梁柱東·池憲英(모도호슬바)·徐在克(모도호슬마) 등 '花乎'를 합쳐서 '호'로 읽는 形態論의 으로도 首肯하기 어려운 '모도호-'를 語幹으로 인식한 것이다. 金善琪(곧고)·金俊榮(고조) 등도 별개의 語幹으로 본 것이다. 金完鎮(1980: 116)은 '꽃(花)'을 '拱꽃-'·'乎'를 '오'로 써 '花乎'는 '고조-'가 되는 것으로, 訓主音從型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花 : 訓借字(꽃- : 動詞의 語幹) 乎 : 音借字(오 : 副動詞語尾)

라. ⑦ (中)三烏賜 〈悼④〉

梁柱東의 '사무산'과 池憲英의 '소라여어신' 등은 해독의 논리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金完鎮(1980: 212)은 '三烏賜'를 '세오신'으로 읽은 것은 '세-(立)'를 위하여 '세(三)'를 假借한 것으로 '賜'字 다음에 '隱'字가 없지만 '나'을 補讀한 것으로 訓主音從型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三 : 訓借字(세- : 動詞의 語幹) 烏 : 音借字(오 : 使動·接尾辭) 賜 : 音借字(시 : 尊敬·先語末語尾) 나 : 補讀(冠形形語尾)

마. ⑧ (心音阿)于波 〈總⑨〉

小倉進平(어운바)을 論外로 해도 梁柱東(아오바)·池憲英(아우바)·金善琪·金俊榮(아우바) 등은 '阿于波'에서 끊어 내리 3字를 音讀한 것이다. 金完鎮(1980: 209)은 '于波'로 끊어 '阿'를 '心音'에 올려 붙여 處格으로 보고 '나바'로서 '금다(괴다)'의 自動詞로 인식한 것이다. 즉 于 : 訓借字(나- : 動詞의 語幹) 波 : 音借字(바 : 先行語幹末音 'ㅂ' + 副動詞語尾 '아')

바. ⑨ (衆生)邊衣于音毛 〈總⑧〉

小倉進平(자의 음에)·金善琪(같이 음모)·金俊榮(마이 음이) 등이 '于音'으로 써 名詞 '음'을 인식한 것과는 달리 梁柱東·池憲英 등은 '세우미'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金完鎮(1980: 208)은 '邊'을 '세-'로 인식하지는 않고 '자'과 '이'의 結合으로 意圖된 點은 '가시-(改)'로서 '于'를 添加하여 他動詞의 語幹이 되고 다시 '音'은 持續態의 표시요 '毛'는 그 '音'을 받은 語尾 '오-'로 파악한 것이다. 역시 訓主音從型으로 인식한 것이다. 즉 邊衣 : 訓借字 + 音借字(가시-·'改' : 動詞의 語幹) 于 : 音借字(우 : 使動·接尾辭) 音 : 音借字(음 : 持續態) 毛 : 音借字(모 : 先行形態素의 末音 'ㅁ' + 副動詞語尾 '오')

위의 A. 가. (①~③)의 '古', 나. (④~⑤)의 '伊', 다. (⑥)의 '花',

鄉歌의 訓借字와 萬葉集歌의 訓假名에 있어서의 運用에 대하여 [381]

라. (7)의 ‘三’, 마. (8)의 ‘于’, 바. (9)의 ‘邊’ 등은 訓借字로서, 一對一의 訓을 빌어 그 音相이 同一한 다른 概念語(lexical form)를 表記하는데 그것을 援用한 것이다. 즉 가. (1)~(3)의 ‘古’는 形容詞를 動詞의 語幹 表記에, 나. (4)~(5)의 ‘伊’는 代名詞를 動詞 및 形容詞의 表記에, 다. (6)의 ‘花’는 名詞를 動詞 語幹의 表記에, 라. (7)의 ‘三’은 數詞를 動詞 語幹의 表記에, 마. (8)의 ‘于’는 名詞를 動詞語幹의 表記에, 그리고 바. (9)의 ‘邊’은 名詞를 動詞 語幹의 表記에 각각 援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表記樣式이 萬葉集歌에서도 보인다.

- B. ① 鹽 滿來者 <六 919>
sifo miti kure ba
潮
- ② 蟻 通 <三 304>
ari gajofu
在
- ③ 小 竹 之 眼 笑 <十一 2754>
si no nō mē nō
芽
- ④ 打 氷 刺 <十六 3791>
uti fi sasu
日
- ⑤ 成 粧 <十六 3834>
nasi natume
梨
- ⑥ 山 素 從 <十六 3803>
jama fa ju
端
- ⑦ 君 之 齒 母 <— 10>
kimi ga jō mo
代
- ⑧ 垂 見 之 上 乃 <八 1418>
taru mi nō ufe nō
水

- ⑨ 此 來 之 <十六 3858>
 kōnō kōrō nō
 頃
- ⑩ 止 時 毛 梨 <十一 2741>
 jamu tōki mo nasi
 無
- ⑪ 煙 立 龍 <— 2>
 kēburī tati tatu
 立
- ⑫ 遺 不得 蘭 <十一 2624>
qasure kane turu
 忘
- ⑬ 馬 變 而 <七 1148>
 uma namē te
 並
- ⑭ 白 不 母 <三 264>
sira zu mo
 知

위 예 B. ①~⑭ 등은 訓假名으로서 一對一의 訓을 빌어, 그 音相이同一한 다른 概念語를 表記하는데 採用한 것이다. B. ①의 ‘鹽’과 ‘潮’는 그 ‘訓’의 音相 [sifo]이一致되므로 ‘鹽’으로 名詞 ‘潮’를 表記한 것. 즉 鹽：訓假名(sifo ‘潮’：名詞) 滿：正訓字(miti: 動詞・ta行四段・連用形) 來：正訓字(kure: 動詞：ka行變則・已然形) 者：正訓字(ba: 假定・接續助詞) B. ②의 ‘蟻’와 ‘在’는 音相[ari]이一致되므로 ‘蟻’로 動詞 ‘在’를 表記한 것. 즉 蟻：訓假名(ari ‘在’：動詞・ra行變則・連用形) 通：正訓字(gajofu: 動詞・fa行四段・連體形) B. ③의 ‘眼’과 ‘芽’는 音相[mē]이一致되므로 ‘眼’으로 名詞 ‘芽’를 表記한 것. 즉 小竹：訓假名+訓假名(sino ‘篠’：名詞) 之：正訓字(nō: 格助詞) 眼：訓假名(mē ‘芽’：名詞) 笑：訓假名(nō: 格助詞) B. ④의 ‘冰’과 ‘日’은 音相[fi]이一致되므로 ‘冰’으로 名詞 ‘日’를 表記한 것. 즉 打：正訓字(uti: 動詞・ta行四段・連用形) 冰：訓假名(fi ‘日’：名詞) 刺：正訓字(sasu:

動詞 · sa行四段 · 連體形) B. ⑤에서 ‘成’과 ‘梨’는 音相[nasi]이一致되므로 ‘成’으로 名詞 ‘梨’를 表記한 것. 즉 成 : 訓假名(nasi ‘梨’ : 名詞) 粟 : 正訓字(natume: 名詞) B. ⑥에서 ‘葉’과 ‘端’은 音相[fa]이一致되므로 ‘葉’으로 名詞 ‘端’을 表記한 것. 즉 山 : 正訓字(jama: 名詞) 葉 : 訓假名(fa ‘端’ : 名詞) 從 : 正訓字(ju: 助動詞 · 自發 · 終止形) B. ⑦의 ‘齒’와 ‘代’는 音相[jō]이一致되므로 名詞 ‘齒’로 또 다른 名詞 ‘代’를 表記한 것. 즉 君 : 正訓字(kimi: 代名詞) 之 : 正訓字(ga: 格助詞) 齒 : 訓假名(jō ‘代’ : 名詞) 母 : 音假名(mo: 係助詞) B. ⑧에서 ‘見’과 ‘水’는 音相[mi]이一致하므로 動詞 ‘見’으로 名詞 ‘水’를 表記한 것. 즉 垂 : 正訓字(taru: 名詞) 見 : 訓假名(mi ‘水’ : 名詞) 之 : 正訓字(nō: 格助詞) 上 : 正訓字(ufē: 名詞) 乃 : 音假名(nō: 格助詞) B. ⑨에서 ‘來’와 ‘頃’은 音相[körö]이一致되므로 동사[körö]로 名詞 ‘頃’을 表記한 것. 즉 此 : 正訓字(könō: 代名詞) 來 : 訓假名(körö ‘頃’ : 名詞) 之 : 正訓字(nō: 格助詞) B. ⑩에서 ‘梨’와 ‘無’는 音相[nasi]이一致되므로 名詞 ‘梨’로 形容詞 ‘無’를 表記한 것. 즉 止 : 正訓字(jamu: 動詞 · ma行四段 · 連體形) 時 : 正訓字(tōki: 名詞) 毛 : 音借字(mo: 係助詞) 梨 : 訓假名(nasi ‘無’ : 形容詞 · ku活用 · 終止形) B. ⑪에서 ‘龍’과 ‘立’은 名詞 ‘龍’으로 動詞 ‘立’을 表記하는 데 採用한 것이다. 즉 煙 : 正訓字(kēburī: 名詞) 立 : 正訓字(tati: 動詞 · ta行四段 · 連用形) 龍 : 訓假名(tatu ‘立’ : 動詞 · ta行四段 · 終止形) B. ⑫에서 ‘遺’와 ‘忘’은 音相[yasure]이一致되므로 動詞 ‘遺’로 다른 動詞 ‘忘’을 表記함에 採用한 것. 즉 遺 : 訓假名(yasure ‘忘’ : 動詞 · ra行四段 · 連用形) 不得 : 漢文的 用法 (kane否定 · 接尾語) 舞 : 訓假名(turu: 助動詞 · 確述 · 連體形) B. ⑬에서 ‘雙’과 ‘並’은 音相[namē]이一致되므로 動詞 ‘雙’으로 動詞 ‘並’을 表記함에 採用한 것. 즉 馬 : 正訓字(uma: 名詞) 雙 : 訓假名(namē ‘並’ : 動詞 · ma行下二段 · 連用形) 而 : 正訓字(te: 接續助詞) B. ⑭에서 ‘白’과 ‘知’는 音相[sira]이一致하므로 形容詞 ‘白’으로 動詞 ‘知’의 表記에

援用한 것. 즉 白：訓假名(sira ‘知’：動詞・ra行四段・未然形) 不：正訓字(zu：助動詞・打消・終止形) 母：音假名(mo：係助詞)

윗例 B. ①~⑭등은 鄉歌 A. 가. ~바. 등에서의 表記樣式과 그 運用面에서 相互 對應되는 共通點이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다음은 一字多音節에서의 ‘訓’을 假借한 表記樣式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A. 사. ⑩ (爾)屋友墮米 〈怨②〉

梁柱東 이후 詩句를 ‘爾屋友’에서 끊어 3字를 내리 音讀한 것이다. 즉 梁柱東(이우리디매)·池憲英(이웃디매)·金善琪(니오디매)·徐在克(글오히디매)·金俊榮(이오스니매) 등, 그러나 오직 金完鎮(1980:139)만은 ‘爾’字를 ‘尔’의 轉訛로 보아 위의 ‘不冬’에 올려 붙여 ‘안들곰’으로 읽고 ‘屋友’의 ‘屋’은 ‘友’의 指定하는 바에 따라 訓讀하여 ‘屋’의 訓 ‘모르’가 動詞 ‘모르’를 表記하는데 假借되었다고 본 것이다. 즉 屋：訓借字(모르～：動詞의 語幹), 友：指定文字, 墮：訓讀字(디～動詞의 語幹), 米：音借字(매：副動詞語尾)

A. 아. ⑪ (咽嗚爾)處米 〈讚①〉

小倉進平(열치매)을 따라 종래 해독에서 ‘咽嗚爾處米’로 詩句를 끊어 5字를 내리 音讀한 것이다. 즉 梁柱東·池憲英‘열치매’, 金善琪‘魯초매’, 金俊榮‘열오이치매’ 등(徐在克‘목메른치매’에서만 2字 音讀). 그러나, 오직 金完鎮만이 ‘咽嗚爾’와 ‘處米’를 나누어 ‘늦겨곰’·‘남라매’로 읽어 訓主音從型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咽嗚：並訓讀字(늦기-：動詞의 語幹+補讀‘어’) 爾：訓借字(곰：強勢添辭‘尔’의 轉訛) 處：訓借字(바라-：動詞의 語幹) 米：音借字(매：副動詞語尾)

A. 자. ⑫ (阿里)刺及彼(可) 〈悼⑤〉

梁柱東은 詩句末에 있는 ‘及彼’에 다음의 ‘可’를 올려 붙여 ‘그때’로 읽는다든가 또는 ‘阿里刺’로써 ‘아리라’(‘刺’를 ‘刺’의 讀字로 본 것)로 읽었고 池憲英은 ‘刺彼可’를 ‘자피어’로 내리 音讀하였는데, ‘可’字의 子音이 無視되어 있는 梁柱東·池憲英의 해독을 論外로 한다면 오직 金完鎮(1980:214)에 이르러 비로소 해독의 正道를 찾게 된다. 즉 刺=‘가시-’(改), ‘及=와’, ‘彼=더’로써 ‘刺及彼’는 ‘가시와더’가 되는 것으로 訓主音從型으로 把握한 것. 즉 刺：訓借字(가시-‘改’：動詞의 語幹)及：訓借字(와：接尾辭) 彼：訓借字(더：感歎法語末語尾)

위의 A. 사. (⑩~자. ⑫) 등은 一字構造의 訓借字가 二音節語에 對應

鄉歌의 訓借字와 萬葉集歌의 訓假名에 있어서의 運用에 대하여 [385]

하는 경우이었으나 다음은 二字構造의 多音節 訓借字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A. 차. ⑯ 花判也 〈讀⑩〉

종래의 해독에서 '花判' (小倉進平·梁柱東·徐在克·金俊榮) 또는 '花郎' (金善琪) 등으로 읽었으나 오직 金完鎮(1980:90)만은 '花判' 2字를 각각 認으로 새겨 읽어 「꽃(花)+갈(判)」 즉 '꽃갈(帽)'의 義訓借로 본 것이다. 즉 花判: 訓借字+訓借字(고깔 '帽': 名詞) 也: 音借字(여: 感歎法 語末語尾)

A. 카. ⑯ 安支不 〈讀⑩〉

梁柱東(안디하) 以後 池憲英(안인해)·金俊榮(안스해)에 이르기까지 '安'을 音讀하였으나(徐在克만 '수만괴하'로 훈독) 金完鎮(1980:85)은 指定文字 '支'의 指示에 의해 '安'을 認讀한 것이다. '安'의 古訓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언찌 않다'라는 表現을 바탕으로 '얹-'이란 形容詞의 語幹을 再構하여 '安'에 代入시킨 것인데, 여기에 '下'字의 認 '아래'를 반처 '언저래' 내지 '언자래'를 표기하기 위한 方便으로 인식한 것이다.

A. 타. ⑯ (彗叱)只有叱故 〈讀⑩〉

小倉進平(비절 악 잊고)으로부터 梁柱東(彗입기 이실꼬)·池憲英(혜入场아잇고)·金善琪(엔끼 잊고)·徐在克(빛즈락 잊고)·金俊榮(쉼잇고) 등에 이르기까지 不過 6字의 해독이 이렇게 各樣各色인데 '彗叱只' 와 '有叱故'로 分節하여 '有叱故'를 正借로 본 點에서는 모두 一致한다. 이에 대하여 金完鎮(1980:136)은 '잇고'는 表記에는 충실했지만 疑問形이 되기에 適合한 形態는 되지 못하므로 詩句를 '彗叱'과 '只有叱故'로 分節하여 읽은 것이다. '彗叱'은 名詞에 'ㅅ(叱)'이 添加되는 것으로 보고 '只有叱故'에서는 '只'를 認으로 새겨 읽어 '다 모' 그것을 '有叱故'에 연결시켜 '다모닛고'란 動詞를 얻게 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즉 只有: 訓借字+訓借字(다모닛고: 動詞의 語幹) 叱: 音借字(ㅅ: 末音添記) 故: 音借字(고: 疑問法 語末語尾)

그런데, 二字構造의 訓假名으로 熟合된 한 單語를 이룬 例가 萬葉集歌에서도 보인다.

B. ⑯ 屋杼禮里之 〈- ?〉
ja dø re ri si
宿

- ⑯ 母 之 御 事 數 <十六 3811>
 fafa nō mi koto ka
 命
- ⑰ 三 名 之 <十六 3791>
 mi na nō
 蟻
- ⑱ 尺 三 二 粟 翦 <十六 3834>
 ki mi ni afa tugi
 素
- ⑲ 赤 根 佐 須 <十六 3857>
 aka ne sa su
 茜
- ⑳ 八 重 六 叢 <十一 2824, 2825>
 ja fe mu gura
 蕉
- ㉑ 名 庶 之 君 之 <十一 2782>
 na biki si kimi ga
 麻
- ㉒ 落 名 積 <七 1116>
 furi na zumu
 泥
- ㉓ 行 由 菜 引 <十六 3791>
 juki ta na bikeru
 棚
- ㉔ 八 間 跡 能 <— 2>
 ja ma tō nō
 大和
- ㉕ 宮 尾 見 名 <十六 3791>
 mijia yo mi na
 女
- ㉖ 者 由 爲 爲 尺 <十六 3800>
 fa ta su su ki
 旗 薄

윗 예 B. ⑯에서 ‘屋杼’ 와 ‘宿’ 은 音相[jadö]이一致되므로 名詞 ‘屋杼’로 動詞 ‘宿’을 表記한 것. 즉 屋杼禮：訓假名+訓假名+音假名(jadöre ‘宿’：動詞·ra行四段·命令形) 里：音假名(ri: 助動詞·完了·連用形) 之：音假名(si: 助動詞·過去·連體形) B. ⑰에서 名詞 ‘御事’로 다른 名詞인 ‘命’을 表記한 것. 즉 母：正訓字(fafa: 名詞) 之：正訓字(nö: 格助詞) 御事：訓假名(mikoto ‘命’：名詞) 疑：正訓字(ka: 疑問·係助詞) B. ⑯에서 ‘三名’과 ‘姥’은 音相[mina]이一致되므로 名詞 ‘三名’으로 다른 名詞 ‘姥’을 表記한 것. 즉 三名：訓假名+訓假名(mina ‘姥’：名詞) 之：正訓字(nö: 格助詞) B. ⑯에서, ‘寸三’과 ‘黍’는 音相[kimi]이一致되므로 ‘寸三’이란 名詞로 또 다른 名詞 ‘黍’를 表記한 것. 즉 寸三：訓假名+訓假名(kimi ‘黍’：名詞) 二：音假名(ni: 格助詞) 粟嗣：正訓字+正訓字(afatugi: 名詞) B. ⑯에서는 名詞 ‘赤根’으로 또 다른 名詞 ‘茜’를 表記한 것. 즉 赤根：訓假名+訓假名(akane ‘茜’：名詞) 佐須：音假名+音假名(sasu: 動詞·sa行四段·連體形) B. ㉒에서 ‘六倉’이란 名詞로 다른 名詞 ‘葦’을 表記한 것. 즉 八重：正訓字+正訓字(jafe: 名詞) 六倉：訓假名+訓假名(mugura ‘葦’：名詞) B. ㉒에서 ‘名延’으로 動詞 ‘靡’를 表記한 것. 즉 名延：訓假名+訓假名(nabiki ‘靡’：動詞·ka行四段·連用形) 之：音假名(si: 強調·副助詞) 君：正訓字(kimi: 代名詞) 之：正訓字(ga: 格助詞) B. ㉒에서 ‘名積’과 ‘泥’는 音相[nazumu]이一致되므로 ‘名積’으로 動詞 ‘泥’를 表記한 것. 落：正訓字(furi: 動詞·ra行四段·連用形) 名積：訓假名+訓假名(nazumu ‘泥’：動詞·ma行四段·連體形) B. ㉒에서 ‘田菜’와 ‘棚’은 音相[tana]이一致되므로 ‘田菜’로 또 다른 名詞 ‘棚’을 表記한 것. 즉 行：正訓字(juki: 動詞·ka行四段·連用形) 田菜：訓假名+訓假名(tana ‘棚’：名詞) 引：正訓字(bikeru: 動詞·ra行四段·連體形) B. ㉒에서 ‘八間跡’과 ‘大和’는 音相[jamatö]이一致되므로 ‘八間跡’으로 名詞 ‘大和’를 表記한 것. 즉 八間跡：訓假名+訓假名+訓假名(jamatö ‘大和’：名詞) 能：音假名(nö: 格

助詞) B. ㉙에서 ‘尾見名’과 ‘女’는 音相[omina]이 一致되므로 ‘尾見名’으로 名詞 ‘女’를 表記한 것. 즉 宮:正訓字(mija: 名詞) 尾見名:訓假名+訓假名+訓假名(omina ‘女’:名詞) B. ㉚에서 ‘者田’과 ‘旗’ 그리고 ‘爲爲寸’과 ‘薄’은 兩字의 訓의 音相 [fata] 및 [susuki] 등이 各各一致하므로 ‘者田(fata)’로 ‘旗’(fata)를, 그리고 ‘爲爲寸(susuki)’으로 ‘薄(susuki)’을 各各 表記한 것이다. 즉 者田:訓假名+訓假名(fata ‘旗’:名詞) 爲爲寸:訓假名+訓假名+訓假名(susuki ‘薄’:名詞).

위의 B. ㉙~㉚ 등은 鄉歌例 A. 차(㉑)~타.(㉕) 등이 二字構造로 한單位의 概念語를 나타내는 경우에 對應이 되는 表記樣式인 것이다.

2. 文法形態素(Grammatical Morpheme)의 表記

앞에서는 「假+假」의 構造에서 意味部를 形成하는 概念語(lexical form)가 語形의 相似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語詞의 訓을 假借한 表記樣式을 보았는데 文法形態素(grammatical morpheme)에서도 ‘의’와 같은用例가 보인다.

文法形態素를 助詞類와 語尾類로 나누고, 助詞에는 格助詞·補助詞·繫辭로, 語尾類는 다시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로 나누어 설명한다. (格助詞는 格에 따라서 分類하고 補助詞는 形態를 單位로 한다. 그 配列順序는 文法書의 慣例에 따른다. 語尾類도 같다.)

1) 助詞類

(1) 格助詞

① 主格

訓借字로는 한 가지 形態가 있을 뿐이다. ‘是’로 表記된다.

A. ① 魂是〈悼③〉: 頃시 [梁·池·完]

② 雪是〈讚⑩〉: 눈이 [小·善]

눈니 [完]

서리 [梁·池·徐·俊]

③ 人是〈鬱⑧〉: 사람이 [小·俊]

사름미 [梁·池·完]

너니 [徐]

④ 民是〈安④〉: 民이 [小·梁·池·徐·完]

민이 [俊], 알간이 [善]

usat

例 A. ①~④에서 主格助詞 [i]가 意圖된 語詞의 意味를, 代名詞 '是'의 語形의 相似를 바탕으로 訓을 빌어 쓴 것이다. 이런 用例는 萬葉集歌에서도 보인다.

B. ① 飛 鳥 肚 蟻 <十六 3791>

asu ka yotōkō ga

② 寶 之 子 等 故 <十六 3791>

takara no ko ra ga

③ 若 子 蟻 見 庭 <十六 3791>

waku go ga mi nifa

④ 稲 寸 丁 女 蟻 <十六 3791>

ina ki yotō me ga

usat

例 B. ①~④ 등에서의 '蚊'은 그 訓[ga]을 假借하여 主格助詞 'ga'의 表記에 採用한 것인데 鄕歌 ①~④의 主格 '是'와 表記樣式에서 一致된다.

② 屬格

usat

鄉歌에서는 音借字「矣·衣·叱」등으로 屬格〔의, 人〕등을 表記할 뿐, 訓借字의 用例는 보이지 않으나, 萬葉集歌에서는 音假名「能[nö]·乃[nö]」등으로는 물론, 訓假名「野[nö]·笑[nö]」 또는 「津[tu]」으로도 '屬格'을 나타낸다.

B. 가. ① 奈 良 野 和 藝 弊 乎 <十八 4048>

na ra nö ya gi fe yo

吾家

② 安 利 蘇 野 米 具 利 <十八 4049>

a ri so nö më gu ri

荒磯

③ 須 久 奈 比 古 奈 野 神 代 欲 里 〈十八 4106〉
su ku na bi ko na nō kamujō jō ri

少彦名

B. 나. ④ 小 野 笑 野 上 者 〈六 926〉
 yo no nō nonō ufe nifa

⑤ 原 笑 荒 妙 〈六 938〉
 fara nō ara tafēnō

⑥ 浮 笑 緒 乃 〈十一 2646〉
 ukē nō yo nō
 泛子

⑦ 葦 原 笑 水 穂 〈十三 3227〉
 asi fara nō mizu fo

⑧ 野 木 笑 松 原 〈三 295〉
 no gī nō matu bara

B. 다. ⑨ 庭 津 鳥 〈七 1413〉
 nifa tu tōri

⑩ 奥 津 白 浪 〈一 83, 三 294〉
 oki tu sira nami

⑪ 邊 津 方 〈三 257〉
 fe tu fe

⑫ 三 食 津 國 〈六 934〉
 mi ke tu kuni

⑬ 天 津 霧 〈七 1079〉
 ama tu kiri

⑭ 天 津 空 〈十二 2887〉
 ama tu sora

⑮ 海 津 路 〈九 1781〉
 umi tu zi

⑯ 島 津 鳥 〈十九 4156〉
 sima tu tōri

⑰ 遠 津 人 〈十二 3089〉
 tōfo tu fitō

⑱ 深 津 島 〈十一 2423〉
 fuka tu sima

例 B. 가. ①~③ 등에서의 ‘野’는 그 調[nō]을, B. 나. ④~⑧ 등에

서의 ‘笑’는 그 訓 [nö]을, 각각 假借하여 連體格助詞 ‘nö’의 表記에 採用한 것이다. B. 다. ⑨~⑯등에서의 ‘津’은 그 訓 [tu]을 假借하여 連體格助詞 ‘tu’의 表記에 採用한 것인데, 이런 경우는 複合名詞 間의 屬格이 化石化된 用例로서 先行名詞는 後續名詞의 存在하는 場所(B. 다. ⑨~⑯)나 性質(B. 다. ⑰~⑲)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處格

訓借字로는 오직 ‘中’字만이 쓰인 것이다. ‘中’은 ‘의’가 事物指示代名詞 ‘그’와 結合하여 處所指示代辭 「의」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處格助詞로 轉用되어 ‘中’으로 表記되었다. 따라서 ‘中’은 起源的으로 ‘의’와 ‘의’를 表記할 수 있다(南豐鉉, 1977:24).

- A. 가. ① 藏史中置 〈常⑥〉: 소식히도 [完], 숟히도 [梁·池], 시시히도 [俊],
나시애도 [善], 날애도 [小]
② 巷中 〈幕⑧〉: 굴령히 [完·徐], 굴허히 [池·俊], 모술히 [梁], 굴령
에 [小], 끌함애 [善]
③ 根中 〈恒②〉: 불휘 [完·梁·池], 불히 [俊], 불휘에 [小], 불귀애
[善]
④ 汀理也中 〈讚④〉: 물서리여히 [完], 물시브리야히 [徐], 물기여히
[俊], 나리여히 [梁], 나리애 [善], 누리이여 [池]
나. ⑤ 一念惡中 〈稱④〉: 一念악히 [梁·俊·完], 一念아히 [池], 一念여해
[小], 일념악애 [善]
⑥ 〈衆生〉海惡中 〈普⑧〉: 바돌악히 [梁], 바돌아히 [池·俊], 바돌아기
[完], 바돌여해 [小], 바돌애 [善]
다. ⑦ 〈千手觀音叱〉前良中 〈讐③〉: 前아히 [梁·池·徐·俊], 알파히 [完],
알해 [小], 알애 [善]

例如 A. 가. ①~④ 등은 起源的으로 處所指示代辭 ‘의’의 轉用 및 起源의 處格助詞 ‘의’의 表記에 訓借字 ‘中’으로 表記한 것이다. 다만 ④의 ‘也中’의 ‘也’는 媒介子音插入形이다. 나. ⑤⑥과 다. ⑦의 「아히」, 「아의」등은 「의」가 有聲音間에서 「의→희→의」의 發達을 거쳐 起源의 「의」와 合流된 다음 ‘良中’ ‘惡中’의 弱母音 「이/의」의 「으/으」의 脫落

으로 十五世紀의 「애/에」로 발달한 것이다(南豐鉉, 1977:92). ‘中’은 위의 A. 가. (①~④), 나. (⑤~⑥), 다. (⑦) 등에서 본 바와 같이 處格으로 다른 경우와 訓讀과 訓借의 中間으로 다루어 漢字의 ‘中’의 뜻이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본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金善琪는 ‘中’을 國語의 單語나 形態素의 뜻에一致하는 處格助詞의 表記로 다루었고(小倉進平의 경우도 더러 이런 態度를 취한 경우도 있다). 梁柱東·池憲英·金俊榮·金完鎮 등은 ‘中’의 뜻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訓讀字와 訓借字와의 中間에 있는 名詞的 意味로 해독한 것이다.

萬葉集歌에서도 ‘中’을 借字한 用例는 보이나 향가의 경우와는 달리, 名詞的 意味만을 나타낼 뿐이다.

B. ④ 天 下 八 島 之 中 爾 〈六 1050〉
amenō sita ja sima nō uti ni
⑤ 心 中 二 〈四 718〉
kōkōrōnō naka ni
⑥ 三 枝 之 中 爾 〈五 904〉
saki kusa nō naka ni
⑦ 磯 中 在 〈七 1300〉
isonō naka naru
⑧ 少 文 心 中 〈十一 2523〉
sukunaku mo kōkōrō utini

위例 B. ④~⑦ 등은 ‘中’에 다시 處格助詞를 받쳐 적은 경우고, ⑧ 등은 處格助詞가 文面에 表記되지 않은 경우다. ⑧에서 ‘nakinaru’는 「nakani+aru」의 略으로 處格 ‘ni’에 ‘aru’가 代替添記된 例다. 따라서 B. ④~⑧ 등은 모두 名詞的 性格만을 共有할 뿐, ‘中’이 處格的 意味를 지니지는 않은 것이다.

萬葉集歌에서는 「丹·荷·似」 등의 訓假名으로 格助詞 ‘ni’를 表記하기도 한다.

- B. ① 松 風 丹 〈三 260〉
 matu kaze ni
- ② 櫓 船 荷 〈一 42〉
 kōgu fune ni
- ③ 妹 似 相 武 登 〈四 664〉
 imo ni afa mu tō

위例 B. ①~③ 등에서 「丹・荷・似」 등의 訓[ni]을 假借하여 「場所・時間・對象」 등을 나타내는 格助詞 'ni'의 表記에 採用한 것이다.

그런데, 향가에서는 純正한 處格助詞는 아니지만, 訓借例와 같은 曲用形 表記에 「煙」을 借字한 것이다. 이것은 名詞末音 'ㄴ'과 處格助詞 '의'를 同時に 充足시킨 表記樣式인데, 純正添記와 附加的 添記의 機能을 複合的으로 遂行한 것이다. 穀竹旨郎歌 ⑤行의 「目煙」에서 梁柱東・池憲英・徐在克・金俊榮 등은 「눈」으로 읽어 「煙」은 略音借 'ㄴ'으로써 「눈」의 純正添記로 인식한 것이나 金完鎮(1980:61)에 이르러 비로소 「煙」의 訓'느'를, 語形의 相似를 바탕으로 「訓」을 빌어 쓴 「名詞末音 'ㄴ' + 處格助詞 '의'」型으로 인식한 것이다.

④ 對格

鄉歌에서 對格은 흔히 音借字 '乙・胎' 등으로 表記된 것으로 인식해 있으나 「於」의 「訓」을 假借하여 對格重加形 '를'의 表記에 採用하기도 한다.

- A. ① 汝於(多支行齊) 〈怨⑧〉: 너 어듸너제<小>, 너엇메니저<梁>, 어듯니지<池>, 다하너저<徐>, 오다기니저<善>, /너를 하 니저<完>
- ② 伊於(衣波) 〈廣⑩〉: 이어(의바)<梁・俊・池>, 이오(이바)<善>, (이것바<小>論外), /더를(니바)<完>

위의 해독에서 볼 수 있듯이 「於」는 梁柱東 以後 音借字로 다루어졌으나 金完鎮(1980:139)에 이르러 비로소 訓借字로 파악된 것이다. 이와 같이 「늘」 對 「를」 등의 音相의 相似를 바탕으로 하여 「訓」을 빌어 쓰는 表記樣式은 萬葉集歌의 對格形에서도 그 用例가 있다.

- B. ① 綱 帶 尾 〈十六 3791〉
 kinu nō ōbi yo
- ② 高 山 麻 〈十三 3336〉
 taka jama yo
- ③ 片 念 男 實 〈四 719〉
 kata mofu yo semu
- ④ 倭 雄 過 而 〈十三 3333〉
 jamatō yo sugi te
- ⑤ 念 意 緒 〈十七 3950〉
 omofu kōkōrō yo
- ⑥ 花 橋 叼 〈十 1966〉
 fana tatibana yo

B. ①~⑥에서는 「尾・麻・男・緒・匁」 등의 訓 [yo]을 假借하여 對格 'yo'를 表記한 方式으로 鄉歌의 表記樣式와 一致點이 있다.

이밖에 純正한 對格助詞는 아니지만, 「水」字를 訓借하여 名詞末音 '口'과 對格助詞 '을'을 동시에 充足시킨 表記樣式이 있다. 가령, 心水 〈請佛⑨〉등 梁柱東(只含聲) 以後 종래의 해독에서 訓借로 인식한 것이다 즉 純正添記와 附加的 添記의 機能이 複合的으로 遂行된 것이다.

(2) 補助詞

① 은/는

補助詞 '은/는'은 주로 音借字 「隱・焉」등으로 表記되고 訓借字의 用例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萬葉集歌에서는 訓假名으로 '主題'를 나타내는 格助詞 'fa'를 表記한 用例가 있다.

- B. 가. ① 子 島 羽 見 遠 〈一 12〉
 ko zima fa misi yo
- ② 多 頭 羽 亂 〈三 324〉
 ta du fa midaru
- ③ 吾 羽 成 奈 武 〈三 348〉
 yare fa nari na mu
- ④ 須 夷 羽 蟻 待 〈四 667〉
 si masi fa ari mate

鄉歌의 調借字와 萬葉集歌의 調假名에 있어서의 運用에 대하여 [395]

- 나. ⑤ 懸者 今秦 <四 695>
kofū fa ima fa
- 다. ⑥ 言齒 五十戶常 <四 674>
ifi fa i fe dō
- ⑦ 氏河齒 <七 1135>
uti kafa fa
- ⑧ 時齒成 <七 1134>
tōki fa nasu
- ⑨ 既心齒 <十二 2986>
sudeni kōkōrō fa

註例 B. 가. (①~④)에서의 ‘羽’는 그 調[fa]을, 나. (⑤)에서의 ‘葉’은 그 調[fa]을, 그리고 B. 다. (⑥~⑨)에서의 ‘齒’는 그 調[fa]을 각각 假借하여 ‘主題’를 뜻하는 係助詞 [fa]를 表記한 것이다.

② 도 :

‘亦同’을 뜻하는 補助詞 ‘도’를 調借字 ‘置’로 表記한다.

- A. ① 德置<稱⑨> : 德도<小·完>, 독도<善>/德두<池·俊·梁>
- ② 日置<總②> : 날도<小·善·完>/날두<梁·池·俊>
- ③ 月置<書⑥> : 들판도<小>, 말도<善>, 들판라도<完>/들두<梁·池·徐·俊>
- ④ 佛體置<常⑧> : 부텨도<小·完>, 불티도<善>/부티두<梁·池·俊>
- ⑤ 吾置<恒⑥> : 나도<完>, 우리도<善>/나두<梁·池·俊>
- ⑥ 歲史中置<常⑥> : 소시히도<完>, 나시애도<善>, 날애도<小>/玄희두<梁·池>, 시시희두<俊>
- ⑦ 軍置<書③> : 군도<小·善·完>/군두<梁·池·徐·俊>
- ⑧ 業置<書⑥> : 업도<小·善·完>/업두<梁·池·俊>

A. ①~⑧ 등에서의 ‘置’는 그 調[tu]을 假借하여 補助詞 ‘도’를 表記한 것인데 萬葉集歌에서도 이런 用法이 보인다.

- B. 가. ① 家貧不有國 <三 265>
ife mo arana kuni
- 나. ② 我藻將依 <十六 3799, 3800>
gare mo jōrinamu

다. ③ 止 時 裳 哭 <十 1907>
jamu töki mo naku

라. ④ 渊 瀬 物 不落 <九 1717>
futi se mo otirazu

B. 가. ①~라. ④ 등에서의 「裳・藻・喪・物」 등은 그 訓[mo]을 假借하여 ‘同類・並立’의 뜻을 나타내는 係助詞 ‘mo’를 表記한 것이다. 따라서, 訓借字 ‘置’와 訓假名 ‘裳・藻・喪・物’ 등이 ‘同類・並立’의 意味를 나타낸 點에서 共通點이 있다.

③ 웃 :

強勢를 뜻하는 補助詞 ‘웃’을 訓借字 ‘衣’로 表記한 것이다.

A. ① 尊衣希(仰支) <願⑤>

② (七史) 伊衣 <慕⑤>

A. ①은 종래의 해독에서 梁柱東을 따라서 詩句를 ‘尊衣希’에서 끊어 ‘衣希’에 「어희・으희・으희」 등으로 읽어 處格 ‘에’ 또는 與格 ‘에게’로 읽었으나, 金完鎮(1980:116)에 이르러 비로소 ‘尊衣’와 ‘希仰支’로 分節하여 ‘衣’는 訓借字로서 訓讀字 ‘尊(문근)’의 밑에 받쳐 強勢의 添辭 ‘웃’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後行하는 他動詞 ‘希仰支(브라우러리)’의 目的語로 파악한 것이다.

A. ②는 小倉進平(수시예)・梁柱東(스시예)・池憲英(사이예)・金善琪(사이애)・金俊榮(수이의) 등이 詩句를 ‘史伊衣’로 끊어 내리 音讀하였고, 徐在克(초시의)은 ‘七’을 내리 붙여 ‘七史伊衣’로 끊었으나 ‘史’로 충분하기 때문에 ‘伊’가 ‘衣’와의 사이에서 여분의 글자가 된다. 金完鎮(1980:62)은 ‘史’를 ‘七’에 올려 붙여 ‘七史’와 ‘伊衣’로 끊어 ‘伊衣’는 訓主音從型으로 보아 「더(代名詞)+웃(強勢添辭)」으로 구성된 單語로 보고, 他動詞 ‘逢烏支’의 目的語로 파악한 것이다. 이런 用法은 萬葉集歌에서도 보인다.

- B. 가. ① 別 石 住 者 <九 1804>
 yakare si jukē ba
- 나. ② 白 髮 為 <十六 3793>
 siro kami si
- 다. ③ 吾 其 悔 尺 <十一 2678>
 yare zō kujasi ki
- 라. ④ 昨 日 社 <十 1843>
 kinō fu kōsō

윗례 B. 가. ①의 *yakare*는 動名詞로서 여기에 ‘強調’를 나타내는 ‘si’가 訓假名 ‘石(si)’로 表記된 것. B. 나. ②의 *sirokami*는 名詞로서 ‘強調’의 副助詞 ‘si’의 表記에 訓假名 ‘爲(si)’가 借字된 것이다. 다. ③의 *yare*는 代名詞로서 여기에 ‘強調’를 나타내는 係助詞 ‘zō’의 表記에 訓假名 ‘其(zō)’가 借字된 것이다. 라. ④의 *kinōfu*는 名詞로서 여기에 ‘強調’의 係助詞 ‘kōsō’의 表記에 訓假名 ‘社(kōsō)’가 借字된 것이다.

(3) 繁辭

繁辭 ‘i’의 表記에 音借字 ‘伊’以外에 訓借字 ‘是’로 表記한다.

- A. ① 四是良羅 <處④>
 ② 吾下是如馬於隱 <處⑦>

윗례 A ①에서 ; 小倉進平(네히리라)以後 종래 해독에서 ‘是’를 繁辭 ‘이’로 파악한 것이다. (梁柱東 ‘네히어라’, 池憲英 ‘네히리라’, 徐在克 ‘너히이라’, 金俊榮 ‘네시아라’, 金善琪 ‘낙이라라’, 金完鎮 ‘네히리라’)

A. ②에서는 小倉進平(네이다마론)을 따른 池憲英(내해이다마론) · 金善琪(우리까이다말온) · 徐在克(나하이다마는) · 金俊榮(내하이다마언) 등과 梁柱東(내해다마론)을 따른 金完鎮(내해다마르는)은 表記上 差異를 보인다. 繁辭 ‘i’의 表記은 隨意的이기 때문에 語幹 ‘i’의 表記보다는 그 語尾의 表記에 보다 力點이 놓여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梁柱東 系는 後者에 속한다.

이와 같이 ‘訓’을 빌어 ‘指定·斷定’ 등의 意味를 나타내는 用例가 萬葉集歌에서도 보인다.

- B. ① 今 盛 有 〈三 328〉
ima sakari nari
- ② 宅 有 人 毛 〈四 651〉
ife naru hitō mo
- ③ 妹 步 行 將 有 〈十三 3317〉
imo ka ti nara mu

usat例 B. ①~③에서 ‘指定’의 뜻을 나타내는 助動詞「nari·naru·nara」의 表記에 訓假名 ‘有’가 借字된 것이다. 즉 B. ①에서 ; 今：正訓字(ima: :副詞) 盛：正訓字(sakari: 名詞) 有：訓假名(nari: 助動詞·指定·終止形) B. ②에서 ; 宅：正訓字(ife: 名詞) 有：訓假名(naru: 助動詞·指定·連體形) B. ③에서 ; 妹：正訓字(imō: 名詞) 步行：訓假名+訓假名(kati: 名詞) 有：訓假名(nara: 助動詞·指定·未然形) 將：正訓字(mu: 助動詞·推量·終止形)

鄉歌와 萬葉集歌에서 ‘指定’을 나타내는 文法形態素의 表記에 각각 ‘訓’을 假借하여 表記한 點에서 一致된다.

2) 語尾類

(1) 先語末語尾

① 合：

‘白’은 積이 動詞 「合-」이고, 謙讓法接尾辭 [合]은 여기에서 轉用된 것이다.

- A. ① 供爲白制〈廣⑧〉：供す合制[小], 供す合制[梁·池·俊·完]
 ② 讀伊白制〈稱⑧〉：기리술제[小], 기리술지[梁·池·俊·完]
 ③ 祈以支白屋尸〈禱①〉：비술甚么[梁·完], 비술甚么[池], 비술甚么[徐], 비
이△술을[俊]
 ④ 素呂白乎睡〈禮②〉：그리술甚么[梁·完], 그리술온[小·池·俊],
 ⑤ 乞白乎叱等耶〈請轉④〉：비술甚么다라[梁], 비술甚么야[完], 비술甚么다라

[池・俊]

칙例 A. ①~⑤ 등에서의 訓借字 ‘白’은 謙讓을 나타내는 先語末語尾 ‘습’의 表記에 借字된 것으로 일찌기 파악된 것이다. 그런데, 萬葉集歌에서도 ‘白’의 借字例가 보인다.

B. ① 白 其 兒 尔 <十一 2348>

mayose sōnō ko ni

② 白 賞 尼 <十六 3885>

mayosi fajasa ne

③ 母 白 者 <十一 2557>

fafani mayosa ba

칙例 B. ①~③에서 ‘白’은 助動詞로 쓰인 것이 아니라, 「mayosa·mayosi·mayose」 등으로 活用하는 定動詞로 쓰인 点에서는 差異가 있으나, 兩便에서 ‘謙讓’의 意味를 나타내는데 ‘白’을 借字한 点은一致된다.

② 시 :

尊敬法을 나타내는 先語末語尾 ‘시’의 表記에는 주로 訓借字 ‘賜’가 쓰였을 뿐이고 訓借字의 用例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萬葉集歌에서는 ‘尊敬’을 나타내는 助動詞 ‘si·su’등의 表記에 訓假名 ‘爲’를 借字한 用例가 보인다.

B. ① 太 敷 為 <一 45>

futō sika su

② 吾 共 唉 為 而 <四 688>

uare tō uema si te

B. ①에서 ; 太敷 : 正訓字 + 正訓字(futō sika: 動詞 · ka行四段 · 未然形) 為 : 訓假名(su: 助動詞 · 尊敬 · 連體形) B. ②에서 ; 吾 : 正訓字(uare: 代名詞) 共 : 訓假名(tō: 格助詞) 唉 : 訓假名(uema: 動詞 · ma行四段 · 未然形) 為 : 訓假名(si: 助動詞 · 尊敬 · 連用形) 而 : 正訓字(te: 接續助詞)

③ 다 :

‘過去’時制를 나타내는 先語末語尾 ‘다’를 ‘如’로 表記한다.

A. 懶爲如乎仁<普 6> : 懶하다온[小・梁・池・俊], 懶하더온[完]

小倉進平의 ‘懒하다온’以後 ‘過去’時制를 뜻하는 先語末語尾로, 파악된 것이다. 萬葉集歌에서도 ‘過去’를 뜻하는 助動詞 ‘keri’의 表記에 訓假名 ‘來(keri)’가 借字된 用例가 있다.

B. 一 夜 宿 二 來 <八 1424>
fitō jo ne ni keru

B. 에서 ; 一夜宿 : 正訓字 + 正訓字 + 正訓字 (fitōjone: 動詞 · na行下二段 · 連用形) 二 : 音假名 (ni: 助動詞 · 確述 · 連用形) 來 : 訓假名 (keru: 助動詞 · 過去 · 連體形)

향가 例 A. ‘如(터)’와 萬葉集歌 例 B. ‘來(keru)’가 ‘過去’를 나타내는 文法形態素를 表記함에 있어 ‘訓’을 假借한 點에서 一致된다.

(2) 語末語尾

① 다 :

說明法의 定動詞 語末語尾 ‘다’를 ‘如’로 表記한다.

A. 가. ① 來如<風 1, 4>; 오다[梁・池・俊・完]

② 抱遣去如<舊 4>; 안고가다[小・梁・池・俊・完], 안겨거다[徐]

나. ③ 蔑人有如白遣賜立<願 8>; 그림 사람 있다 숨고사서[小], 그림 사람 있다 숨고사서[梁][俊], 蔑人 있다 숨고사서[池], 그리는 사람 있다 숨고사서[善], 그림 사람 있다 숨겨사서[徐], 그리는 사람 있다 숨고사서[完]

④ 吾隱去內如辭叱都<祭 3>; 나는가는다말스도[梁・池・完], 난가는다말스도[徐], 나온가는다말스도[俊], 우리난까나다말도[善]

윗例 가. (①~②)는 純正한 說明法의 語末語尾 ‘다’를 表記한 것이고 나. (③~④)는 ‘傳聞’의 뜻을 가진 文末 終止形의 關係化를 보인 것이다. A. 가. ①은 梁柱東(오다) 以後 해독이 定立된 것이다. A. 가. ②는

鄉歌의 訓借字와 萬葉集歌의 訓假名에 있어서의 運用에 대하여 [401]

小倉進平(안고가다)에서 定立된 것이다. A. 나. ③은 小倉進平(그릴사람
잇다술고사서)에서 ‘傳聞’을 나타내는 終止形의 關係化를 인식한 것이다.
A. 나. ④는 梁柱東(나는가는다말지도)에서 해독이 이미 定立된 것으로
終止形의 關係化를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萬葉集歌에서는 訓假名
으로 表記한 純正한 說明法 語末語尾는 用例가 없으나 ‘傳聞’을 나타내는
助動詞 ‘nari’의 表記에 訓假名 ‘成(nari)’이 借字된 用例가 보인다

B. ① 鳴 而 去 成 〈九 1756〉
naki te juku nari

② 鶴 曾 鳴 成 〈三 375〉
kamo zō naku naru

B. ①에서 ; 鳴 : 正訓字(naki: 動詞 · ka行四段 · 連用形) 而 : 正訓字(te:
接續助詞) 去 : 正訓字(juku: 動詞 · ka行四段 · 終止形) 成 : 訓假名(nari:
助動詞 · 傳聞 · 終止形) B. ②에서 ; 鶴 : 正訓字(kamo: 名詞) 曾 : 音假名
(zō: ‘強調’ 副助詞) 鳴 : 正訓字(naku: 動詞 · ka行四段 · 終止形) 成 : 訓
假名(naru: 助動詞 · 傳聞 · 連體形)

② 가 :

疑問法語尾인데 ‘去’로 表記한다.

A. ① (四十八大願) 成遣賜去 〈願⑩〉

② (嫉妬叱心音) 至刀來去 〈隨⑩〉

A. ①에서 小倉進平의 ‘닐우고샤파라’와 金善琪의 ‘닐고샤쇼’를 論外
로 하면 梁柱東의 ‘일고살가’以後 池憲英(일고살가) · 徐在克(이르겨시
가) · 金俊榮(일고샤가) 등 ‘去’를 疑問法 語末語尾로 파악한 것이다.

A. ②에서 小倉進平의 ‘닐도울가’ 以後 梁柱東 및 池憲英의 ‘닐도울
가’ · 金善琪의 ‘일도울까’ · 金俊榮의 ‘닐오울가’ · 金完鎮의 ‘니률울가’
등 ‘去’를 疑問法의 語末語尾로 파악한 것이다. 이와 같이 疑問法 語末
語尾의 表記에 ‘訓’을 假借하여 表記한 用例가 萬葉集歌에서도 보인다.

- B. ① 妹 乘 良 六 鹿 〈-42〉
 imo noru ra mu ka
- ② 妹 待 覺 蚊 〈十一 2631〉
 imo matu ramu ka
- ③ 陰 尔 將 比 疑 〈七 1099〉
 kagē ni sōfēmu ka

例 B. ①~③ 등에서 「鹿·蚊·疑」 등은 訓 [ka]을 假借하여 疑問·反語의 係助詞 'ka'를 表記한 것이다. 즉 B. ①에서 ;妹：正訓字(imo: 名詞) 乘：正訓字(noru: 動詞·ra行四段·終止形) 良六：音假名+訓假名(ramu: 助動詞·推量·連體形) 鹿：訓假名(ka: 疑問·係助詞) B. ②에서 ;妹：正訓字(imo: 名詞) 待：正訓字(matu: 動詞·ta行四段·連體形) 蚊：訓假名(ka: ‘疑問’ 係助詞) B. ③에서 ;陰：正訓字(kagē: 名詞) 尔：音假名(ni: 格助詞) 比：正訓字(sōfē: 動詞·fa行下二段·未然形) 將：正訓字(mu: 助動詞·推量·連體形) 疑：訓假名(ka: 疑問·係助詞)

③ 냐더 :

感歎法語尾인데 ‘彼’로 表記한다.

A. (彌阿里) 刺及彼(可) 〈悼⑤〉

金完鎮(1980:213~214)이 指摘한 바와 같이, ‘職麻又欲望彌阿里’를 ‘집더느리’로 읽은 池憲英과 ‘皇彌 阿里刺 及彼可’를 ‘브라며 아리라 그벼’로 해독한 梁柱東은 常道에서 아주 벗어났으므로 이들의 해독을 論外로 한다. 金完鎮은 詩句를 ‘彌阿里 刺及彼’로 끊어 ‘활자바리 가시 와벼’로 읽었다. 즉 刺=가시=‘改’, 及=와, 彼=벼 등으로 파악한 것인데 訓借字 ‘彼’는 感歎法語尾 ‘벼’의 表記로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訓’을 假借하여 感歎法語尾를 表記한 用例는 萬葉集歌에서도 보인다.

- B. 가. ① 伎 氣 婆 可 奈 思 物 〈十七 3958〉
 ki kē ba ka na si mo

- ② 見 良 久 之 好 漢 <六 983>
 mi ra ku si jōsi mo
- ③ 手 玉 鳴 裳 <十一 2352>
 ta dama si naru mo
- ④ 荒 樂 苦 借 哭 <六 1059>
 aru ra ku osi mo
- 나. ⑤ 成 家 留 鴨 <三 452>
 nari ke ru kamō
- 다. ⑥ 左 夜 深 去 來 <三 274>
 sa ja fukē ni keri

윗例 B. 가. (①~④)는 ‘感歎’을 나타내는 終助詞 ‘mo’의 表記에 訓假名「物・漢・裳・哭」등을, B. 나. (⑤)는 ‘感歎’의 終助詞 ‘kamo’의 表記에 訓假名「鴨」을, 그리고 ‘感歎’을 뜻하는 助動詞 ‘keri’의 表記에 訓假名「來」를 각각 借字한 것이다. 즉 B. 가. ①에서; 伎氣: 音假名+音假名(kikō ‘聞’: 動詞・ka行四段・已然形) 婆: 音假名(ba: 接續助詞) 可奈思: 音假名+音假名+音假名(kanasi ‘悲’: 形容詞・siku活用・終止形) 物: 訓假名(mo: 詠歎・終助詞) B. 가. ②에서; 見: 正訓字(mi: 動詞・ma行上一段・未然形) 良久: 音假名+音假名(raku: 接尾辭) 之: 音假名(si: 強調・副助詞) 好: 正訓字(jōsi: 形容詞・ku活用・終止形) 漢: 訓假名(mo: 詠歎・終助詞) B. 가. ③에서; 手玉: 正訓字+正訓字(tadama: 名詞) si: 補讀(強調・副助詞) 鳴: 正訓字(naru: 動詞・ra行四段・終止形) 裳: 訓假名(mo: 詠歎・終助詞) B. 나. ⑤에서; 成: 正訓字(nari: 動詞・ra行四段・連用形) ni: 補讀(助動・確述・連用形) 家留: 音假名+音假名(keru: 助動詞・過去・連體形) 鴨: 訓假名(kamo: 詠歎・終助詞) B. 다. ⑥에서; 左夜: 音假名+音假名(saja: 接尾辭 ‘sa’+名詞 ‘ja’) 深: 訓假名(fukē ‘更’: 動詞・ka行下二段・連用形) 去: 訓假名(ni: 助動詞・完了・連用形) 來: 訓假名(keri: 助動詞・詠歎・終止形)

④ 쇼석 :

命令法語尾인데, 韋歎法先語末語尾와 연관된 語形이다. 借字로는 ‘賜

立'으로 나타난다.

A. (慕人有如) 白遣賜立 〈訓④, ⑥〉

小倉進平 以後 ‘豁고샤서’(‘시’와 ‘서’ 사이에 母音을 보충하여 ‘샤서’로)로 읽었으나 金完鎮(1980:115)에 이르러 ‘豁고쇼서’로 읽어 ‘~고라’形의 敬語體로 認識한 것이다.

萬葉集歌에서도 「請願・懇望」등을 나타내는 終助詞「na・ne・namu・kane」의 表記에 ‘訓’을 假借한 用例가 있다.

B. 가. ① 家	吉	閑	名	〈一 1〉
ife	ki	ka	na	
나. ② 名	告	紗	根	〈一 1〉
na	nora	sa	ne	
다. ③ 奥	從	酒	嘗	〈七 1402〉
oki	ju	sakē	namu	
④ 渡	七	六	〈九 1781〉	
uatara	na	mu		
라. ⑤ 語	繼	金	〈三 364〉	
katari	tugu	gane		

要例 B. 가. ①은 終助詞 ‘na’의 表記에 訓假名 ‘名(na)’을, 나. ②는 ‘ne’의 表記에 訓假名 ‘根(ne)’을, 다. ③④는 ‘namu’의 表記에 訓假名 ‘嘗(namu)’ 및 ‘七六(namu)’을, 그리고 終助詞 ‘gane’의 表記에 訓假名 ‘金(gane)’을, 각각 借字한 것이다. 즉 B. 가. ①에서 ; 家：正訓字 (ife: 名詞) 吉閑：音假名+音假名(kika: 動詞・ka行四段・未然形) 名：訓假名(na: 懇望・終助詞) B. 나. ②에서 ; 告：正訓字(nora: 動詞・ra行四段・未然形) 紗：音假名(sa: 助動詞・尊敬・未然形) 根：訓假名(ne: 懇望・終助詞) B. 다. ③에서 ; 奥：正訓字(oki: 名詞) 從：正訓字(ju: 格助詞) 酒：訓假名(sakē ‘放’：動詞・ka行下二段・未然形) 嘗：訓假名(namu: 請願・終助詞) B. 다. ④에서 ; 渡：正訓字(uatara: 動詞・ra行四段・未然形) 七六：訓假名+訓假名(namu: 請願・終助詞) B. 라. ⑤에서 ; 語

：正訓字(katari: 動詞・ra行四段・連用形) 繼：正訓字(tugu: 動詞・ga行四段・連體形) 金：訓假名(gane: :請願・終助詞)

(3) 副動詞語尾

① 𠂊록 :

副動詞語尾 ‘𠂊록’은 ‘所只’ 또는 ‘色只’로 表記된다.

- A. 가. ① (法界叱) 毛叱所只 〈禮④〉
나. ② (法界) 毛叱色只(爲亦) 〈廣⑤〉

과녁을 벗어 난 小倉進平(밀사지)·金善琪(몽고다)등을 除外하면 종래의 해독에서 梁柱東(듯드록)을 따른 것이다. 金完鎮(1980:160)은 ‘毛’를 訓讀하여 ‘없도록’으로 읽은 것이다. 「업다·업순」등과 같은 純正의 形容詞와는 달리, 動詞的 「업느다·업눈」등으로 과악한 動詞 「없어지다」로 認識한 것이다. 따라서 ‘所, 는 訓借字로서 ‘只’를 뒤에 받쳐 動詞語幹에 연결되어 ‘程度’를 나타내는 副動詞로 쓰인 것이다.

萬葉集歌에서도 「程度・限界」등을 나타내는 副動詞 ‘made’의 表記에 ‘訓’을 假借한 用例가 보인다.

- B. 가. ① 年 替 左右 〈二 180〉
tōsi kafaru made
나. ② 舟 泊 左右手 〈七 1189〉
fune faturu made
다. ③ 內 二手 所聞 〈三 238〉
uti made kikōju

巢例 B. 가. ①은 副助詞 ‘made’의 表記에 訓假名 ‘左右(made)’를,
B. 나. ②는 ‘made’의 表記에 訓假名 ‘左手手(made)’를, B. 다. ③은 副助詞 ‘made’의 表記에 訓假名 ‘二手(made)’를 각각 借字한 것이다. 즉
B. 가. ①에서 ; 年 : 正訓字(tōsi: 名詞) 替 : 正訓字(kafaru: 動詞・ra行四段・連體形) 左右 : 訓假名(made: 限界・副助詞) B. 나. ②에서 ; 舟 :

正訓字(fune: 名詞) 泊: 正訓字(faturu: 動詞・ta行下二段・連體形) 左右手: 訓假名(made: 限界・副助詞) B. 다. ③에서; 內: 正訓字(uti: 名詞) 二手: 訓假名(made: 限界・副助詞) 所聞: 正訓字+正訓字(kiköju: 動詞・ja行下二段・終止形)

② 늘/늘 :

흔히 先語末語尾 ‘거/아’ 아래 나타나는 副動詞語尾인데, 여기서는 ‘는’ 밑에 받쳐 借字 ‘於’로 表記한 것이다.

A. 次弗□史內於(都還於戶郎也) 〈遇⑥〉

第3字가 缺字인 까닭에 解讀上의 昏迷를 거듭한 詩句로서 대체로一致되는 곳이라고는 첫 두 字 ‘次弗’인데, 梁柱東(서풀-), 金善琪·金俊榮(자블-)·徐在克(치블-) 등 모두 音讀한 點이다. 그러나, 金完鎮(1980:149)은 詩句를 ‘次弗(乎)史內於’과 ‘都還於戶郎也’로 끊어 ‘며를 오시는 늘’과 ‘도도랄랑여’로 읽은 것이다. 前句에서의 解讀을 보면, 종래의 해독이 ‘～於都’까지 詩句를 끊어 6字를 내리 音讀한 態度와는 달리, ‘於’를 訓借字로 다룬 點이다. ‘於’의 訓 ‘늘’은 對格 重加形 ‘를’에 起源한 것으로 「를/를, 늘/늘」등의 表記로 利用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먼저 ‘史內於’에서 ‘史’字가 드물게 ‘賜’에 對應되고 ‘內’字가 現在 표시의 ‘는’를 나타내는데 注目하여 ‘史內於’이 ‘一시는늘’임을 想定하고, 그 앞에 오는 缺字는 用言의 語幹이거나 被動 아니면 使動 밖에 올 수 없으므로 ‘使動’의 接尾辭 ‘乎’로 보며 ‘次弗’을 動詞語幹으로 想定한 것이다. 動詞로서의 ‘次弗’의 뜻은 ‘며를-’인데, 末音添記 ‘를’은 ‘弗’이 아니라 ‘物’의 轉訛로 본 것이다. 따라서, ‘次弗(乎)史內於(며를오시는 늘)’에서의 ‘於’는 ‘讓步’를 나타내는 副動詞語尾로 파악된다. 그런데 萬葉集歌에서도 이와 같은 ‘讓步’를 나타내는 接續助詞 ‘tömo 또는 dömo’의 表記에 ‘訓’을 假借한 用例가 보인다.

B. 가.	①	與	杼	六	友	<— 31>
		jō	dō	mu	tōmo	
나.	②	金	之	三	崎	乎 過 病 <七 1230>
		kane	nō	mi	saki	yo sugiñu tōmo
다.	③	寶	跡	言	十方	<三 345>
		takara	tō	ifu	tōmo	
라.	④	夜	目	見	侶	<十 1845>
		jo	mē	ni	mire	dōmo
마.	⑤	不	相	念	跡	妄 <四 615>
		afiomofazu			tōmo	

첫째 B. 가. ①은 接續助詞 ‘tōmo’의 表記에, 訓假名 ‘友(tōmo)’를,
 B. 나. ②는 訓假名 ‘病(tōmo)’을, B. 다. ③은 訓假名 ‘十方(tōmo)’을,
 B. 라. ④는 訓假名 ‘侶(dōmo)’를, B. 마. ⑤는 訓假名 ‘跡妄(tōmo)’을 각
 각 借字한 것이다. 즉 B. 가. ①에서 ; 與杼六 : 音假名+音假名+訓假名
 (jōdōmu: 動詞 · ma行四段 · 終止形) 友 : 訓假名(tōmo: 讓步 · 接續助詞)
 B. 나. ②에서 ; 金 : 正訓字(kane: 名詞) 之 : 正訓字(nō: 格助詞) 三崎 :
 正訓字+正訓字(misaki: 名詞) 乎 : 音假名(yo: 格助詞) 過 : 正訓字(sugi: 動詞 · ga行上二段 · 連用形) nu: 補讀(助動詞 · 完了 · 終止形) 病 : 訓假名(tōmo: 讓步 · 接續助詞) B. 다. ③에서 ; 寶 : 正訓字(takara: 名詞) 跡 : 訓假名(tō: 格助詞) 言 : 正訓字(ifu: 動詞 · fa行四段 · 終止形) 十方 :
 訓假名(tōmo: 讓步 · 接續助詞) B. 라. ④에서 ; 夜目 : 訓假名+訓假名
 (jomē: 名詞) ni: 補讀(ni: 格助詞) 見 : 正訓字(mire: 動詞 · ma行上一段
 · 已然形) 侶 : 訓假名(dōmo: 讓步 · 接續助詞) B. 마. ⑤에서 ; 相 : 正訓
 字(afi: 副詞) 念 : 正訓字(omofa: 動詞 · fa行四段 · 未然形) 不 : 正訓字
 (zu: 助動詞 · 打消 · 終止形) 跡妄 : 訓假名+訓假名(tōmo: 讓步 · 接續助
 詞)

지금까지 위에서 論議된 訓借字와 訓假名으로 表記한 文法形態素에
 있어서의 對應關係를 要約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助詞類 : (1) 格助詞 : ① 主格 : 是/蚊(ga) ② 屬格 : (用例 없음)/矣(nō) .

野(nō) · 津(tu) ③ 處格：中(惡中·良中)/丹(ni) · 荷(ni) · 似(ni) ④ 對格：於/尾(yo) · 麻(yo) · 男(yo) · 雄(yo) · 緒(yo) · 味(yo) (2) 補助詞～① 은/는 : (用例 없음) /齒(fa) · 葉(fa) · 羽(fa) ② 도：置/裳(mo) · 藻(mo) · 貞(mo) · 物(mo) ③ 強勢添辭：衣/石(si) · 爲(si) 또는 其(zō) · 社(kōsō) (3) 繫辭～是/有(nari·naru·nara)

2) 語尾類：(1) 先語末語尾～① 過去：如/來(keru) ② 尊稱：(用例 없음)/爲(si 또는 su) ③ 謙讓：白/(用例 없음) (2) 語末語尾～① 說明法：如(音如·省如) 또는 (古)如/有(tari) 또는 六(mu) ② 疑問法：去(ka)/歟(ka) · 鹿(ka) · 疑(ka) ③ 感歎法：彼/裳(mo) · 物(mo) · 藻(mo) · 哭(mo) · 下(mo) · 霜(mo) 또는 名(na) ④ 請願法：賜立/名(na) · 根(ne) · 金(kane) · 詧(namu) ⑤ 傳聞：如/成(naru) (3) 副動詞語尾～ ① 限界：所只·色只/左右(made) · 左右手(made) · 二手(made) ② ～티：矣/(用例 없음) ③ ～다가：如可/(用例 없음) ④ 讓步：於/友(tōmo) · 侶(dōmo) · 炳(tōmo) · 十方(tōmo) · 跡裳(tōmo) (4) 冠形容語尾～ *畜(<留>) · *刃(<刀>)/有(ru) 등.

III.

本稿에서 얻어진 所得은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1. 萬葉集歌의 借字體系 중 訓假名體系와 그 運用法을, 鄉歌와 比較·檢討함으로써 鄉歌의 訓借字의 運用體系를 再構할 수 있게 된 것이다.

鄉歌의 訓借字와 萬葉集歌의 訓假名의 運用을, 概念語(lexical form)의 表記와 文法形態素(grammatical morpheme)의 表記로 나누어 對較해 볼 때, 兩便이 相互 對應되는 表記樣式를 가지고 있음이 確認되었다. 이러한 確認은 지금까지 資料의 制約으로 인하여 昏迷를 거듭해 오던 鄉歌의 難解한 詩句에 대한 새로운 解讀을 可能하게 할 것이다. 從來의 解讀에서 보면 어떤 概念語나 어떤 文法形態素의 表記를 音借字로만 認識해 오던 것들을 訓借字로 把握함으로써 새로운 解讀의 可能性을 열어 주게 된 것이다.

2. 鄉歌에서 概念語의 表記에 訓借字를 借字한 表記例가 보이는데(가령, 끗 ‘花’ + 갈 ‘判’ → 고갈 ‘帽’ 등) 이와 마찬가지로 萬葉集歌에서도概

念語의 表記에 訓假名으로 借字한 表記例(가령, na ‘名’ + kusa ‘草’ → nagusa ‘慰-’ 등)가 있다. 따라서, 萬葉集歌의 이러한 ‘訓’을 假借하는 表記樣式은 鄉歌에서 ‘花判’을 ‘고깔(帽)’로 읽을 수 있는 可能性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향가에서 文法形態素의 表記에 있어서도 訓借字로 表記된 例가 보이는데 [가령, 於(을)→를(對格), 是(이)→이(主格) 등]. 이와 마찬가지로 萬葉集歌에서도 文法形態素의 表記에 訓假名으로 借字한 表記例가 있다[가령, 尾・麻・男・雄・緒→yo(對格), 蚊→ga(主格) 등]. 따라서 萬葉集歌의 이러한 訓假名의 表記例는 鄉歌에서 ‘於’를 ‘對格’으로, ‘是’를 ‘主格’으로 解讀할 수 있는 可能性을 示唆해 준다.

3. 鄉歌에서 訓借의 表記例를 보면, 一字의 ‘訓’을 假借하여 한 單位의 概念語를 一對一로 나타내거나(가령, 伊 ‘여’→作 ‘여’ 등) 또는 一對二로 두 概念語를 나타내는 경우(가령, 皆 ‘모도’→ 몯 ‘不’ + 오 ‘來’ 등)에 援用하는 表記樣式, 그리고 이와 正反對로 訓讀字 2字의 音相을 假借하여 한 單位의 概念語를 二對一로 나타내는 경우(가령, 只 ‘다본’ + 有 ‘잇-’→與 ‘다무닛-’ 등)가 있는데, 萬葉集歌에서도 이에 對應되는 訓假名의 表記例가 있다(가령, 「湯(yu) 鰐(kamë)→yukamë(行かめ)에서 ‘鰐’의 音相[kamë]을 빌어 先行動詞語幹의 未然形[ka]와, 助動詞[me]의 複合構造의 表記에 援用한 一對一의 訓借, 「久(fisa)→fi(日) + sa(差-)」에서 ‘久’의 音相[fisa]을 빌어 名詞[fi]와 sa行四段動詞語幹[sa]의 複合構造의 表記에 援用한 一對二의 假借, 그리고 「名(na) + 引(biku)→nabiku(靡)」에서는 二對一의 假借를 보인다. 따라서 萬葉集歌의 이러한 表記樣式들은 鄉歌에서 「여 ‘伊’→여 ‘作’」, 「모도 ‘皆’→ 몯 ‘不’ + 오- ‘來’」 그리고 「다본 ‘只’ + 잇- ‘有’→다무닛- ‘與’」등으로 解讀할 수 있는 可能性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信沆(1973) 四聲通解研究, 新雅社.
- _____ (1976) 15世紀文獻의 現實漢字音에 대하여, 東洋學學術會議論文集, 成均館大學校.
- _____ (1979) 國語學史, 普成文化社.
- _____ (1980) 鵝林類事「高麗方言」研究, 成均館大學校出版部.
- 金公七(1981) 日本語古典文法, 塔出版社.
- 金思燁(1979) 記紀萬葉의 朝鮮語, 六興出版社.
- 金善琪(1967~1975) 향가의 새로운 풀이, 現代文學 145호—250호.
- 金完鎮(1973) 國語語彙磨滅의 研究, 震檀學報 35.
- _____ (1977a) 三句六名에 대한 한 假說,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 _____ (1977b) 鄉歌의 語學的研究의 基準, 言語外 言語學 5.
- _____ (1978) 鄉歌原文의 訂誤를 위하여, 冠嶽語文 3.
- _____ (1979a) 鄉歌解讀의 實際, 國語學 9.
- _____ (1979b) 萩竹旨郎歌解讀의 考究, 震檀學報 48.
- _____ (1979c) 鄉歌解讀의 考究二篇, 東洋學 9.
- _____ (1979d) 鄉歌解讀 三章,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 18.
- _____ (1980) 鄉歌解讀法 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21, 서울大學校出版部.
- 金俊榮(1979) 鄉歌文學, 螢雪出版社.
- 南廣祐(1966) 東國正韻式 漢字音研究, 韓國研究院.
- _____ (1973) 古語辭典(補訂版), 一潮閣.
- 南豐鉉(1968) 中國語借用에 있어 直接借用과 間接借用의 問題,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鄉歌의 訓借字와 萬葉集歌의 訓假名에 있어서의 運用에 대하여 [411]

- _____ (1975) 漢字借用表記法의 發達, 國文學論集 第7·8合輯(檀國大學校 國文科).
- _____ (1976) 國語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 제 3집.
- _____ (1977) 鄉歌와 舊譯仁王經口訣의 '之叱'에 대하여, 언어 제 2권 제 1호.
- _____ (1980a) 口訣과 吐, 國語學 第 9輯, 國어학회.
- _____ (1980b) 漢字·漢文의 受容과 借字表記法의 發達, 1980學術大會 發表論文, 精神文化研究院.
- _____ (1980c) 國語處格助詞의 發達,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 _____ (1980d) 借字表記法의 用字法에 대하여, 蘭汀南廣祐博士華甲紀念論叢.
- _____ (1981) 借字表記法研究, 단국대학교 출판부.
- 南豐鉉·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研究(其一), 東洋學 第 6輯,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 朴甲千(1973) 世界의 地名, 正音社.
- 朴炳采(1971) 漢字의 利用과 國語의 表記, 「古代國語의 研究」所收, 高麗大學校 出版部.
- 方鍾鉉(1946) 古語材料辭典, 東農社.
- _____ (1948) 訓民正音通史, 一成堂書店.
- 徐在克(1975) 新羅鄉歌의 語彙研究, 啓明大 韓國學研究所.
- 安秉禧(1965) 後期 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 6. (建國大學校)
- _____ (1968) 中世國語의 屬格語尾「入」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 _____ (1977) 中世國語口訣의 研究, 一志社.
- _____ (1978) 村家教急方의 鄉名에 대하여, 언어학 第 3號, 한국언어

학회.

- 梁柱東(1942) 朝鮮古歌研究.
- _____ (1965) 增訂 古歌研究
- _____ (1947) 麗謠箋注.
- 俞昌均(1971) 鄉歌의 「支」字 表記에 대하여, 藏菴池憲英先生華甲紀念論叢
- _____ (1980)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啓明大出版部.
- 劉昌惇(1964)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 李基文(1963a) 國語表記法의 歷史的 研究, 韓國研究院.
- _____ (1963b) 十三世紀中葉의 國語資料, 東亞文化 第一輯,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 _____ (1967) 韓國語形成史, 韓國文化史大系 V. (言語·文學史),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 _____ (1968) 鶴林類事의 再檢討, 東亞文化 第 8 輯,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 _____ (1971) 訓蒙字會研究,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 _____ (1972a) 國語音韻史研究, 서울大 韓國文化研究所.
- _____ (1972b) 改訂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 _____ (1972c) 漢字의 釋에 관한 研究, 東亞文化 第11輯, 서울大 東亞文化研究所.
- 李崇寧(1946) 母音調和 修正論, 한글 제96호.
- _____ (1955)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관한 試論, 서울大學校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第 2 輯.
- _____ (1956) 濟州島 方言의 形態論의 研究, 東方學志 2.
- 李鍾徹(1977) 日本上代文獻에서 東音系로 推定되는 「菊·宿·筑」에 대하여, 國語學 第 5 輯.
- _____ (1978) 推古朝遺文에서의 「烏·都·奴·布」의 表寫에 대하여, 서

을大 人文論叢 第二輯.

- _____ (1979a) 古代 日本地名 및 人名에 借用된 「麻」에 대하여, 冠誠 語文 第3輯.
- _____ (1979b) 日本에 傳授한 百濟의 漢字文化에 대하여, 國어교육 34.
- 李 鐸(1958) 鄕歌新解讀, 國語學論叢.
- 李弘植(1973)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 任洪彬(1981) 存在前提와 屬格標識 {의}, 言語와 言語學 제 7집(外大 言語研究所).
- 鄭然祭(1972) 鄉歌解讀의 一斑,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金烈圭·李在鉉 共著)
- 池憲英(1948) 鄉歌麗謡新釋.
- 淺見徹(1964) 新撰萬葉集の用字, 萬葉 第51號.
- 大野晋(1952) 假名の發達と文學史との交渉, 文學 12號.
- _____ (1953) 上代假名遣の研究, 岩波書店.
- _____ (1955) 古代日本人の ことばと 文字, 言語生活 第292號, 座談會 記錄.
- _____ (1958) 假名文學・假名文の創始, 岩波講座 日本文學史 二卷.
- 大野晋·佐竹昭廣·前田金五郎(1974) 岩波 古語辭典, 岩波書店.
- 大島正健(1931) 漢音吳音の研究, 第一書房.
- 大塚悅三(1931) 文法に立脚せる 萬葉集の研究, 大倉廣文堂.
- 大野透(1962) 萬葉假名の研究, 明治書院.
- 大矢透(1911) 假名源流考, 國語調査委員會
- 坂元義種(1978) 百濟史の研究, 城書房.
- 佐佐木信綱(1930) 分類萬葉集, 岩波書店.
- 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晋(1977), 校注日本書紀(上·下), 日本古典文學大系 67, 岩波書店.
- 尾崎暢次(1968), 萬葉集選釋, 加藤中道館.

- 小倉進平(1929), 鄕歌及び吏讀の研究, 京城大學.
- 竹内理三・山田英雄・平野邦雄(1958), 日本古代人名辭典, 吉川弘文館.
- 高木市之助・富山民藏(1974), 古事記總索引, 平凡社.
- 高木市之助・五味智英・大野晋(1957) 校注萬葉集, 日本古典文學大系 4,
岩波書店.
- 藤堂明保(1965) 漢字語源辭典, 學燈社.
- 鶴 久・森山隆(1972), 萬葉集, 櫻楓社.
- 鶴 久(1976) 萬葉集の用字・語法(萬葉集 古文研究シリーズ' 6), 尚學圖
書.
- _____ (1977) 萬葉假名(岩波講座) 日本語 8 文字, 岩波書店.
- 中西進(1968) 憶良歸化人論, 國學院雜誌 第70卷 第11號.
- 中田祝夫(1980) 音韻史・文字史(講座 國語史), 大修館書店.
- 西宮一民(1950) 日本上代の文章と表記, 風間書房.
- 春日和男(1979) 新編 國語史概說, 有精堂.
- 橋本進吉(1949) 文字 及び 假名遣の研究 岩波書店.
- 橋本四郎(1959) 訓假名を めぐって, 萬葉 第33號.
- 藤井茂利(1975) 推古朝遣文の假名と朝鮮漢字音, 鹿兒島大學 文學科 論
集 第11號.
- _____ (1977) 古代 日本文化と朝鮮, 鹿兒島大學 薩摩路 第21號.
- _____ (1981) 推古朝遣文の文末表記に用いた「之」について, 鹿兒島大學
薩摩路 第26號.
- 藤井茂利譯(1981) 日本古代地名と 人名に借用した「麻」に就いて(李鍾徹,
古代 日本地名 및 人名에 借用된 「麻」에 대하여, 冠岳語
文 第3輯, 1979) 薩摩路 第26號
- _____ (1982) 上代日本の補助動詞「賜・給」の表記, 鹿兒島大學 文學科
論集 第17號.
- 福田良輔(1977) 九州の萬葉, 櫻楓社.

鄉歌의 訓借字와 萬葉集歌의 訓假名에 있어서의 運用에 대하여 [415]

馬淵和夫(1979)「三國史記」「三國遺事」に あらわれた古代朝鮮の用字法
について、言語學論叢 11號.

正宗教夫(1974) 萬葉集 總索引(漢字篇), 平凡社.

_____ (1977) 萬葉集總索引(單語篇), 平凡社.

待永正子(1965) 新撰 萬葉集の文字について, 香椎洞 10號.

山田孝雄(1950) 漢文の訓讀によりて傳へられる語法.

土田杏村(1934)「上代歌謡」, 土田杏村全集 第十三卷.

和田義一(1950) 古事記の敬語補助動詞.

H. Pedersen (1931) *The Discovery of Language*,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London.

U. Weinreich (1974) *Languages in Contact*, Mouton.